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 우 준 김 동 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교수

본 연구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년 패널(YP2021) 자료 중 1차 연도 기준 미취업 청년으로 분류된 1,845명의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 그리고 2차 연도 쉬었음 상태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25.0를 이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쉬었음 청년의 진로성숙도는 취업 또는 구직 중인 청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남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은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승산을 약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은 진로성숙도를 유의하게 향상하며, 이는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승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남성과 달리 여성 미취업 청년의 경우 진로상담 경험과 쉬었음 상태 간의 직, 간접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쉬었음 청년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상담적 개입방안을 논하고 관련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쉬었음 청년, 진로상담 경험, 진로성숙도, 니트, 성별 차이

*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NRF-2020S1A3A2A02103411).

† 교신저자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636, E-mail : dikimedu@snu.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 ‘쉬었음’ 청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쉬었음 청년 인구는 약 30만 명(전체 청년 인구 대비 3.5%)대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40만 명대로 크게 늘어났으며, 사태가 종료된 현시점까지 그 수치는 줄지 않고 늘어나 50만 명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국가데이터처, 2025; 김중욱, 2023). 남재량(2021)의 연구에서도 어떠한 취업 노력이나 직업훈련 중에 있지 않은 비구직 청년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16.6만 명이 증가하며 4배의 증가 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쉬었음’ 청년이란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한 달 이상 구직 시도가 중단되고, 육아나 질병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한 주 이상 쉬었던 청년을 의미한다(김중욱, 2023). ‘쉬었음’이라는 표현은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설문지에 쓰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에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육아, 가사, 취업 준비 등의 응답과 함께 ‘쉬었음’이라는 선택지가 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즉, 해당 용어는 최초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이기 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는 동시에 이러한 조사 자료를 통해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청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대 사회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Neologism)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고용이나 이를 위한 교육, 훈련 중에도 있지 않은 상태를 학술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가 많이 사용되지만, ‘쉬었음’이라는

용어는 특히 그러한 비경제활동 상태 중에서도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육아나 질병 등의 표면적 이유 없이 구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낮은 동기 상태를 부각하기 위해 생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는 이유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적, 심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남재량(2021)은 쉬었음 상태와 같이 아무런 구직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와 구직 중인 청년을 추적 관찰하였는데, 비구직 니트 청년은 구직 중인 청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낮은 고용 확률과 고용의 질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받는 임금 또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니트 청년들의 전환 과정을 확인한 한 인터뷰 연구에선 장기적으로 은둔하며 구직동기가 낮은 니트 청년들이 무력감, 좌절감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관계 단절과 같이 대인관계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권기철 등, 2022). 더불어 고용노동부(2025)에서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구직동기가 감소하며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쉬었음 청년과 같이 한 번 구직을 단념한 니트는 1년 이상 지속되어 만성화되는 상태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김기현 등(2018)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급격히 많아진 쉬었음 청년들이 구직 단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쉬었음 청년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러한 쉬었음 상태의 심각성은 해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니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EU 공식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니트 관련 보고서를 보면(Eurofound, 2012), 쉬었음 상태와 같이 니트 중에서도 구직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Disengaged NEET'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는데, 해당 유형으로 분류된 니트는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며, 취업에 대한 의지가 낮고, 나아가 일상에서의 사회 참여율 또한 낮아 사회적 소외감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2025)에선 청년들이 쉼을 선택하는 이유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쉼을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이 높게 나타났고, 이외 번아웃(burn-out)과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김종욱(2023)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청년 쉬었음 발생의 주요 사유가 '희망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일자리가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쉬었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을 예상해 구직을 단념하고 쉼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은 다른 쉬었음 청년에 관한 분석 자료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김기현 등, 2018). 이와 달리, 청년 니트가 발생하는 주된 위험 요인을 메타 분석한 해외 연구를 보면 인종 문제나 범죄 행동 문제, 또는 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주로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Rahmani et al., 2024), 국내 연구에선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취업 의사도 없는 포기형 니트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주희진, 주효진,

2017). 이는 국내 쉬었음 청년이 많아지는 원인이 해외 사정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내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쉼을 선택하는 현상은 학벌 등의 구직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바뀐 말해 취업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구직 시도 자체를 단념, 회피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취업 청년들이 이러한 쉬었음 상태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쉬었음 상태가 취업에 대한 동기가 약해진 동시에,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계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린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5; 권기철 등, 2022; 금창민, 이해은, 2023). 진로상담은 개인의 진로 선택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돕기 위한 지도, 교육 과정으로(임은미, 2022), 이는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계획, 메타인지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기르는 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손승연, 이종연, 2017). 이에 교육부(2023)는 2027년까지의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진로 역량 강화 대책 중 하나로 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아직 쉬었음 청년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경험이 그들의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제한되는 실정이다. 진로상담 경험이 미취업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강수민 등(202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구성주의 진로집단상담의 효과성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연구 결과 해당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에 상관없이 진로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신애와 조항(2020)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 대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86개의 효과 크기를 메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 효과 크기는 1.3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집단원 수가 11-15명 사이일 때, 회기가 13회기 이상일 때, 진행 시간이 90분 이하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연구의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를 살펴봤을 때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 진로효능감, 진로행동, 그리고 진로성숙도 순으로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철 등(2017)의 연구에선 개인 진로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한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완벽주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한편 Behrendt 등(2021)의 연구에선 1:1 진로상담을 중심으로 진로상담사의 행동이 구직자들의 재취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연구 결과 상담사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로 지침 제공이 구직자들의 재취업 속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진로성숙도’ 또한 미취업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와 주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생애 진로 발달 주기에서 개인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 계획, 그리고 실행하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채희원, 2023). 이는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에

서 강조된 개념으로, 그는 개인이 일생에 거친 진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진로 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가 진로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며 해당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의하면, 구직행동이 중단된 쉬었음 청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진로발달이론에서 청년 시기는 개인의 진로를 연이어 탐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는 탐색기와 확립기 사이에 해당하는데, 미취업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는 진로 선택을 위한 탐색이나 시행 활동을 단념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구직을 시도하는 청년에 비해 당면한 진로 과제를 성숙하게 대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채희원, 2023). 실제로 청년 니트의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살펴본 전영창과 이선화(2024)의 연구에선 쉬었음 상태와 같이 취업 준비나 구직태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던 포기형 니트가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유예형 니트보다 진로성숙도 평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미취업 청년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그들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취업 준비 행동, 혹은 취업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이 개인의 진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수리, 이재창, 2007; 정민주, 2014; 조민제, 2010; Prideaux & Creed, 2001), 쉬었음 상태가 원하는 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감에 기반한 믿음이 적고 취업 준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권기철 등, 2022; 김종옥, 2023), 이러한 진로

성숙도의 변화가 미취업 청년들로 하여금 구직을 단념하고 쉼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진로 선택이나 시행에 대한 효능감과 긍정적 예측을 갖고 구직을 시도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진로성숙도는 Super(1955)가 강조한 것과 같이 진로 계획과 탐색, 결정, 자신과 직업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이 진로상담 경험을 통해 쉬었음 상태가 아닌 구직 노력을 지속하는 상태에 있게 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상담이나 집단상담과 같은 다양한 진로상담 과정은 진로성숙도 향상을 통해 개인의 진로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먼저 방희원 등(2020)이 심리검사, 자기 탐색, 목표 설정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상담 개입은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요인 중 하나인 결정성을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신애와 조항(2020)의 메타분석 연구에선 국내 대학생 대상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평균효과크기 $1.26(d=0.37)$ 으로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비슷하게 de Carvalho 등(2024)이 여러 나라에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도 분석 대상이 된 프로그램들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동시에 자기효능감, 진로 목표에 대한 명확성, 직업 탐색 능력, 사회적 관계 형성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아직 쉬었음 청년에 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여 청년들의 쉬

었음 상태에 대해 진로상담 경험이나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개인의 구직행태나 진로 양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두되는 쉬었음 청년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 또한 두 성별을 나누어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청년 니트 비율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지만, 그 증가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10-15% 더 높은 성별 차이가 관찰되기도 하였다(남재량, 2021).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성별에 따른 직업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박소현과 이금숙(2016)이 성별에 따른 국내 직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꾸준히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가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즉 시대 변화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구조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여성 취업구조 변화 통계자료를 보면(정형욱, 정수연, 2024),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 대비 평균 20% 낮게 나타나며, 평균 임금은 더 낮게 받고, 비정규직 규모는 남성보다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 쉬었음 청년 인구가 10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국내 산업 중 대부분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성별 업종분리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차이는 남녀 간 구직행

태 및 이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의 차이로 이어진다. 대학교 4학년생의 구직행태를 성별 차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직업성취를 운과 운명에 더 많이 귀인하고 있었고,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녀 차별이나 신체적 조건 등의 측면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 등, 2004). 비슷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이 진로 자기효능감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른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유수복, 2017). 또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진로 동기와 진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한 최현주와 신혜진(2017)의 연구에선, 남성의 진로준비행동은 외부적 한계보다 개인적인 진로 방향 설정과 관련된 진로통찰력이나 내적 문제 해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여성은 사회적 압력이나 성역할 기대와 같은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외부갈등 스트레스의 해결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유의하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는 것이 꾸준히 밝혀져 왔다(차정은 등, 2007; 함경애, 박현주, 2017). Carkit과 BACANLI(2020)의 메타분석 결과에선 여성의 진로성숙도가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며, 이러한 차이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반면, 박찬호 등(2021)이나 정선영 등(2025)과 같은 최근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선영 등(2025)은 성역할 차이나 취업 기회 불균형과

같은 진로 장벽에 의해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진로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진로상담 개입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함경애와 박현주(201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집단 참여 이후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지만, 이러한 진로성숙도 수준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성은 진로성숙도 향상이 진로 탐색 실천 등 삶으로도 이어져 행복감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다른 요인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을지라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달리, 진로 집단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을 메타 분석한 강윤경과 선혜연(2017)의 연구에선 성별에 따른 효과 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진로 집단은 아니지만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국내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선 성별에 따른 효과 크기가 남성 집단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기령, 2018).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적 진로 신념 개선을 위한 집단적 개입의 효과성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의 부정적 진로 신념 감소 효과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Hechtlinger & Gati, 2019). 해당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여성의 도움 추구 행동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고(Lipshits-Brazilier et al., 2022), 우울 증 치료나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 등 상담 개입에서 얻는 이득 또한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측하기도 하였다(Rojiani et al., 2017; Sikkema et al., 2004).

이처럼 일반적인 상담이나 진로상담 개입의 효과성 자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자주 확인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진로상담 개입의 형태나 주제에 따라 오히려 남성의 효과가 더 크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일부 존재하여 진로상담 개입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특히 진로상담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 대부분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구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것이 쉬었음 상태와 같은 실제 구직 상태에도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러한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 수준이 1년 뒤 쉬었음 상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성별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 상태(구직 또는 쉬었음)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확인하고,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 수준이 1년 뒤 구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멈춰 서있는 쉬었음 청년들에 대한 심리내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을 적절히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상담적 개입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1)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구직 상태와 쉬었음 상태 사이에 진로성숙도는 차이

가 있는가?

연구 문제2) 미취업 남성, 여성 청년들의 진로상담 경험은 이후 쉬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3) 미취업 남성, 여성 청년들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1)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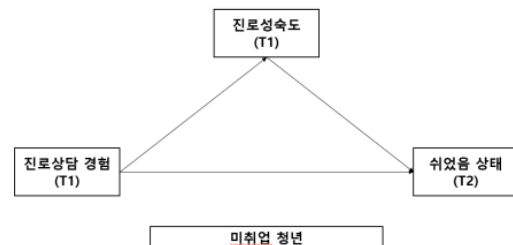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2025)에서 2021년 기준 20~29세(만19~28세) 청년층 12,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패널(Youth Panel 2021) 1,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패널 조사 설문 문항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지난 1개월 내에 일자리를 구해보셨습니까?(예/아니오)’라고 묻는 문항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오’를 선택한 대상에게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가사/육아, 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쉬었음, 기타)’라고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쉬었음 혹은

취업 및 구직 중인 청년을 분류하였다. 1차 자료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1,845명이었고, 이 중 2차 자료에 최근 한 달 동안 어떠한 구직 및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동시에 최근 1주간 하였던 활동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쉬었음 청년은 230명이었다. 이외 작년엔 미취업자였지만 올해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1,350명, 아직 미취업자이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265명으로, 쉬었음 상태가 아닌 취업 및 구직 상태의 청년은 총 1,615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 중 진로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했던 진로상담 비율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1차 연도에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취업 청년 371명(20.1%) 중, 가장 많이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난 진로상담 유형은 1:1 대면 개인 상담(271명, 73%) 방식이었고, 가장 적은 유형은 비대면 상담(17명, 4.6%) 방식이었다. 2차 연도 구직 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과거에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쉬었음 청년, 혹은 취업하였거나 구직 중에 있는 청년 모두 가장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난 진로상담 유형은 1:1 대면 개인 상담 방식이었고(쉬었음 청년 21명[67.7%], 취업 및 구직 중인 청년 250명[73.5%], 가장 적은 유형은 비대면 상담(쉬었음 청년 1명[3.2%], 취업 및 구직 중인 청년 17명[4.6%])이었다.

측정 도구

진로상담 경험 여부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 여부를 파악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2021(T1)		2022(T2)		2022(T2)	
		미취업 청년		취업 및 구직 중인 청년		쉬었음 청년	
		N	%	N	%	N	%
전체		1,845	100	1,615	100	230	100
성별	남	939	50.9	803	49.7	136	59.1
	여	906	49.1	812	50.3	94	40.9
나이	19-24	1,234	66.9	1,070	66.3	164	71.3
	25-28	611	33.1	775	33.7	66	28.7
학력	고졸미만	9	.5	6	.4	3	1.3
	고졸	1255	68.0	1088	67.4	167	72.6
	전문대졸	180	9.8	162	10.0	18	7.8
	대졸	392	21.2	351	21.7	41	17.8
	석사 이상	9	.5	8	.5	1	.4
진로상담 경험	있음	371	20.1	340	21.1	31	13.5
	없음	1,474	79.9	1275	78.9	199	86.5

하고자 1차 연도 청년 패널 조사 자료 중 Part E의 4번 문항인 진로지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청년 패널 조사는 크게 A부터 E 영역까지 나뉘어 응답자의 학교생활, 경제활동 상태, 지난 일자리 등을 묻게 되며, 그중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E 영역(Part E)은 응답자의 진로지도 경험, 진로발달수준, 구직동기 등 진로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나 심리적 구인을 확인한다. 그중 4번 문항인 진로지도 문항에서는 전공선택, 진학, 취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있다, 없다'로 묻고, 이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진로지도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다지선다형으로 묻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진로지도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동시에, 참여했던 활동이 (1)개인 상담(1:1 면대면 전문가 상담), (2)개인 상담(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3)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상담, (5)심리 검사였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진로상담 경험 있음(1)'으로, 이외 진로지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진로상담이 아닌 다른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은 '진로상담 경험 없음(0)'으로 코딩하였다.

진로성숙도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연도 청년 패널 조사 자료 중 Part E의 5번 문항에 속한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에 포함된 척도로, 총 12문항(계획성 4문항, 독립성 4문항, 자기 이해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묻게 된다. 먼저 계획성은 개인의 진로 방향과 직업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의 정도를

묻게 되고(예, 나는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립성은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 준비, 선택을 타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정도를 물으며(예,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마지막 자기이해는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묻게 된다(예,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나갈지를 알고 있다).

같은 척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채희원(2023)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별 요인적재량은 .70~.85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위 설명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한 결과, 신뢰도는 .84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83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쉬었음 상태

미취업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 2차 연도 청년 패널 조사 자료 중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묻는 영역인 Part C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구직 상태와 최근 한 활동을 묻는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선 1차 연도를 기준으로 미취업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분류하였고, 이 중 2차 연도 응답에서 똑같이 미취업자인 동시에, 최근 한 달 동안 구직이나 취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최근 1주일 동안 한 행동에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쉬었음 상태(1)'로, 이외 1차 연도엔 미취업자였지만 2차 연도엔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여전히 미취업자지만 구직활동

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쉬었음이 아닌 상태(0)’로 코딩하였다.

결 과

먼저 주요 변인 중 1차 연도(T1) 진로상담 경험과 2차 연도(T2) 쉬었음 상태의 성별에 따른 비율을 확인한 결과(표 1), 진로상담 경험의 경우 1차 연도 미취업 청년 전체 1,845명 중 1,474명(79.9%)이 진로상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비율도 이와 비슷하였다. 쉬었음 상태의 경우, 1차 연도 미취업 청년 중 1년 뒤 조사 시점에서 취업 혹은 구직 상태로 전환된 인원은 1,615명(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30명(12.5%)은 쉬었음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성 쉬었음 청년이 136명

(14.5%), 여성 쉬었음 청년이 94명(10.4%)으로 나타나 남성 쉬었음 청년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1차 연도(T1) 진로성숙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관련 없이, 해당 변인의 왜도 절댓값은 2보다 작고, 첨도 절댓값은 7보다 작다는 점에서 진로성숙도 변인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Curran et al., 1996).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보면, 남성의 경우 진로상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띄고 있었지만($r=-.08, p<.05$), 여성의 경우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4, p>.05$). 반면 매개변수인 진로성숙도는 남성과 여성의 쉬었음 상태 모두와 통계적

표 2. 진로성숙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성별	M	SD	S_{sk}	S_{ku}
진로성숙도(T1)	전체	4.15	.58	.22	.29
	남성	4.13	.59	.20	.00
	여성	4.17	.58	.25	.61

표 3. 관심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쉬었음 상태	진로상담 경험	진로성숙도
쉬었음 상태(Y)	1.0		
진로상담 경험(X)	-.06** (-.08*/-.04)	1.0	
진로성숙도(M)	-.13*** (-.17***/-0.07*)	.17*** (.16***/.17***)	1.0

주. N=1,845, * $p<.05$, ** $p<.01$ *** $p<.001$

주. 상관계수 값은 ‘전체(남성/여성)’ 순서로 제시

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7, -.07$). 독립변수인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련 없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r=.16\sim.17$).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미취업 청년들의 1년 뒤 취업 혹은 구직 상태와 쉬었음 상태에 따른 진로성숙도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를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미취업 청년 전체를 보면, t 값은 5.59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진로성숙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혹은 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4.18, 쉬었음 청년은 3.95로 쉬었음 청년의 진로성숙도가 더 낮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진로성숙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t=5.38, p<.001$, 여성 $t=2.15, p<.05$), 마찬가지로 쉬었음 청년이 취업 혹은 구직 중인 청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 로지스트 회귀분석 결과

미취업 청년의 1차 연도 진로상담 경험이 종속변수인 2차 연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트 회귀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이를 로그 변환하여 독립변수에 따른 변동비를 살펴보는 회귀분석 방식으로,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 [OR])에 따라 이분화된 종속변수에 속할 확률이 산출되며, 95% 신뢰구간은 0이 아닌 1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분석 결과, 미취업 청년 전체와 남성의 진로상담 경험은 각각 유의수준 .01,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33, p>.05$). 구체적으로, 미취업 청년 전체의 비표준화 계수는 -.54, 승산비는 0.584로 미취업 청년이 진로상담을 받으면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승산이 진로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0.58배 수준으

표 4. 취업/구직 상태와 쉬었음 상태에 따른 진로성숙도 평균 차이

	구 분	N	M	SD	t(p)
전체	취업/구직 상태	1,615	4.18	.58	5.59(.000)***
	쉬었음 상태	230	3.95	.60	
남성	취업/구직 상태	803	4.17	.58	5.38(.000)***
	쉬었음 상태	136	3.88	.59	
여성	취업/구직 상태	812	4.19	.57	2.15(.032)*
	쉬었음 상태	94	4.05	.60	

주. N=1,845, * $p<.05$, ** $p<.01$ *** $p<.001$

표 5. 쉬었음 상태에 대한 진로상담 경험의 이항 로지스트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대상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진로상담	전체	-.538	.203	7.047	.008**	.584	1.151	2.546
경험 있음 (ref. = 경험 없음)	남성	-.700	.28	6.262	.012*	.496	1.164	3.486
	여성	-.333	.295	1.275	.259	.717	.783	2.484

주. N=1,845,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취업/구직 상태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남성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는 -.700, 승산비는 0.496으로, 미취업 남성이 진로상담을 받을 경우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승산이 진로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0.50배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분석 결과

미취업 청년의 1차 연도 진로상담 경험이 종속변수인 2차 연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차 연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시행하였다(Hayes, 202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이고 매개변수가 연속변수인 본 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개변수 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을, 종속변수 분석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어 산출된 결과이다. 먼저, 남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6), 각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F=25.42$ ($p < .001$), $X^2=33.03$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1차 연도 진로상담 경험은 같은 시기 진로성숙도에 $B=.24$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매개변수인 진로성숙도는 $B=-.85$ ($p < .001$)로 2차 연도에 쉬었음 상태로 갈 승산

표 6. 진로상담 경험(T1)과 쉬었음 상태(T2)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T1)의 매개효과 (남성)

변수	진로성숙도(T1)				쉬었음 상태(T2)			
	B	SE	t	p	B	SE	t	p
진로상담 경험(T1) (ref. = 경험 없음)	.24	.05	5.04	.000	-.52	.29	-1.84	.066
진로성숙도(T1)			-		-.85	.17	-4.92	.000
F(p)			25.42***				-	
R ²			.03				-	
X ² (p)			-				33.03***	
Nagelkerke R ²			-				.06	

주. N=939,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취업/구직 상태

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진로상담 경험이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B = -.52(p > .05)$ 로 유의미하지 않아, 진로성숙도가 진로상담 경험과 쉬었음 상태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여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7),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투입된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F = 26.7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종속변인까지 모두 포함된 모델은 $X^2 = 5.36(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1차 연도 진로상담 경험은 같은 시기 진로성숙도에 $B = .24(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매개변수인 진로성숙도는 $B = -.39$

($p < .05$)로 2차 연도에 쉬었음 상태로 갈 확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미취업 청년이 진로상담을 경험하였을 때 진로성숙도가 0.24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1단위 증가할 때 2차 연도에 쉬었음 상태에 있을 승산이 32% 정도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만,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하지 않아 본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 여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한 결과를 아래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 미취업 청년의 경우, 하한 신뢰구간(BootLLCI = -.338)과 상한 신

표 7. 진로상담 경험(T1)과 쉬었음 상태(T2)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T1)의 매개효과 (여성)

변수	진로성숙도(T1)				쉬었음 상태(T2)			
	<i>B</i>	<i>SE</i>	<i>t</i>	<i>p</i>	<i>B</i>	<i>SE</i>	<i>t</i>	<i>p</i>
진로상담 경험(T1) (ref. = 경험 없음)	.24	.05	5.17	.000	-.24	.30	-.81	.421
진로성숙도(T1)			-		-.39	.20	-1.98	.047
<i>F(p)</i>			26.72***				-	
<i>R</i> ²			.03				-	
<i>X</i> ² (<i>p</i>)			-				5.36	
Nagelkerke <i>R</i> ²			-				.01	

주. $N = 939$, * $p < .05$, ** $p < .01$ *** $p < .001$, reference group: 취업/구직 상태

표 8. 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변수	<i>Effect</i>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남성	-0.205	0.062	-0.338	-0.101
여성	-0.095	0.056	-0.214	0.005

주. Bootstrap samples = 5,000

퇴구간($BootULCI=-.101$)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5보다 작음을 의미하므로, 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의 경우, 하한 신뢰구간($BootLLCI=-.214$), 상한 신뢰구간($BootULCI=.005$)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진로성숙도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즉, 진로상담을 경험하면 진로성숙도가 증가하며, 진로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후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은 감소하는 간접효과는 남성 미취업 청년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매개 가능성을 성별에 따라 확인함으로써 심각해지고 있는 쉬었음 청년 문제에 관한 미취업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취업 청년의 취업/구직 상태와 쉬었음 상태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업 의향과 구직태도가 낮았던 포기형 니트의 진로성숙도가 취업 준비 중인 니트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전영창, 이선화, 2024). 나아가 지금까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 준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진로성숙도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쉬었음 청년의 심리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새롭게 시사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쉬었음 청년 문제는 직업구조의 개선과 같이 거시적 시점에서 다뤄질 필요도 있지만(고용노동부, 2025), 이러한 문제 한가운데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성숙도를 길러주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개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항 로지스트 회귀분석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취업 청년 중 남성의 진로상담 경험은 이후 쉬었음 상태로 전환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개인 상담, 비대면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와 같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한 남성 미취업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상담 경험이 개인의 취업 탐색 행동이나 재취업 속도와 정적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부 맞닿아 있다(이은진, 2002; Behrendt et al., 2021). 로지스트 회귀분석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력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엔 한계가 있지만, 남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은 1년 뒤 쉬었음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한다.

또한,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남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상담 경험과 쉬었음 상태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성

미취업 청년이 과거에 참여한 진로상담 경험 이후 쉬었음 상태에 있게 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엔 진로상담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취업 준비 행동의 증가에 있어 진로성숙도 향상이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정민주, 2014; Prideaux & Creed, 2001). 즉, 남성 미취업 청년이 경험하는 진로상담과 이로 인한 진로성숙도의 향상은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온 것처럼 진로에 관한 태도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쉬었음 상태가 아닌 구직/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패널 조사에 참여한 여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은 이후 쉬었음 상태와 통계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진로상담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성숙도가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효하게 나타났지만, 해당 모형의 모형적합도와 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성 미취업 청년에게서 나타났던 쉬었음 상태에 대한 진로상담 경험의 예방효과와 달리, 여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은 그들의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1년 뒤 구직 상태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선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진로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직업 구조적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연구들에 의

하면, 여성의 취업구조는 남성보다 더욱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박소현, 이금숙, 2016), 구직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직업성취를 운이나 운명에 더 많이 귀인하고, 남녀 차별이나 신체적 조건 등 성별에 의한 차이를 취업 장애요인으로 더욱 자주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유수복, 2017; 장재운 등, 2004). 특히 본 연구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이러한 미취업 상태에서 경험하는 불안은 진로 장벽과 같은 상황적 제약을 더 많이 의식하게 할 수 있다(오한솔, 이지혜, 2020). 즉, 함경애와 박현주(2017)의 분석처럼 진로상담이 여성의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도, 그것을 실제 삶과 연관 지었을 때 구직 과정에서의 취업구조나 진로 장벽과 같이 여전히 남성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미취업 청년들의 진로상담 경험만으로는 1년 뒤 구직 상태를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의 특성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두 성별의 진로성숙도 차이는 여성 미취업 청년($M=4.17$)이 남성($M=4.13$)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뒤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는 비율도 남성은 약 14%, 여성은 약 10%로 여성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의 진로성숙도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기도 하였으며(함경애, 박현주, 2017; Carkit & BACANLI, 2020), 국내 청년 니트 실태를 종단 분석한 김기현 등(2018)의 조사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미취업 상태를 벗어나 취업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본 조사에 참여한 여성 미취업 청년들도 남성 미취업 청년보다 진로 과정에 대

한 준비가 이미 더 많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기에 남성과 달리 진로상담 경험과 같은 외부적 도움은 이후 실제 구직 상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구들마다 활용한 변인들의 차이에 기인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이나 자기효능감 같이 구직과 관련된 심리, 행동적 요인들을 효과 변인으로 활용하였고, 측정 시점은 대개 개입 직후에 이루어졌다(김중운, 박성실,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반면, 본 연구는 진로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구직 상태가 변화하였는지를 1년 뒤 시점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온전히 비교하는 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아직 진로상담 개입이 여성 미취업 청년의 실제 구직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탐색적으로 제안할 수밖에 없으며, 진로상담 경험에 의한 실제 구직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쉬었음 청년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상담의 예방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남성 미취업 청년의 과거 진로상담 경험이 진로성숙도 향상을 통해 이후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경험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이후 취직에 성공하거나 구직을 지속하도록 돕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psychological buffer)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 비대면, 집단, 심리검사 등으로 진행되는 진로상담은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기 쉬운 남성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개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진로성숙도라는 심리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성숙도는 쉬었음 상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특히 남성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변화는 단순히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영향에만 그치지 않고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지속하거나 이를 단념하고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미취업 청년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는 향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설계나 청년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시 단순한 직업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넘어, 청년들의 진로성숙도를 향상하기 위한 심리적 개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미취업 청년의 실제 구직 상태와 진로성숙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청년들의 자기효능감이나 자기정체감과 같이 진로성숙도와 밀접하다고 알려진 다른

심리적 요인들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상태 간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쉬었음 청년 발생 현상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은수, 이운선, 2022; Son et al., 2025).

셋째, 본 연구는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가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쉬었음 상태와 관련 구직행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여성 미취업 청년의 경우 진로상담 경험이 이후 쉬었음 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구직 가능성이나 질을 포함해 개인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쉬었음 청년 문제가 여성에 있어 진로상담 경험만으로는 쉽게 예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 결과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상담 개입들이 여성의 실제 구직 상태를 바꿀 수 있는지,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와 같은 실질적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구직행태를 살펴본 연구들 대부분이 여성의 진로 장벽과 같은 직업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러한 직업 구조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정형욱, 정수연, 2024).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청년 니트 관련 정책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학교 밖 청년과 같은 대상만을 특별히 분류하여 다루고 있는데(김기현 등, 2018), 쉬었음 청년 문제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에도 성별에 따른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되지 않은 진로상담의 단순한 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것임으로 어떤 형태의 진로상담이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 예방에 효과적인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상담 경험의 쉬었음 상태에 대한 예방효과가 일부 검증된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특정 진로상담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이후 구직 혹은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달라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진로상담 관련 연구들은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히는 데 치중되어 있으나(강수민 등, 2022; 김신애, 조항, 2020), 본 연구 결과 미취업 청년들이 경험했던 진로상담 중 집단상담은 12.4%에 그치며, 대면 방식의 개인 상담이 약 70%로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1:1 대면 개인 상담 방식의 진로상담 개입이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예방효과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는 연구가 많아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선 남성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 예방에 진로상담 경험과 이를 통한 진로성숙도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여성 미취업 청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상담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개입 전략은 탐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선 진로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다른 진로 관련 개입들이 여성 미

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거나(고용노동부, 2025), 진로상담 개입이 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추적 관찰해봄으로써 여성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1년 간격에 따른 두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 변인 간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으나, 1년 사이에 다른 변수나 상황 변화가 미칠 가능성은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종단설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로그 변환을 적용하는 PROCESS macro Model은 승산비를 통해 변수 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제시할 뿐, 이들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1차 연도에 진로상담 경험이 있었던 미취업 청년은 그러한 참여 자체가 취업이나 구직활동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의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는 애초에 쉬었음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엄밀한 종단연구 설계를 통한 실험적 접근이나 연속형 종속변수와 통제 변수를 활용한 검증과 같은 방법론 활용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가 쉬었음 상태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쉬었음 상태에 이르게 된 동기나 지속 이유(진로미결정, 진로장벽 등)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또한 연구 결과 해석에 한계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쉬었음 상태의 유형과 동기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진로상담 경험과 진로성숙도

의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철, 이아라, 신미라, 이용석, 조 항 (2017). 대학생 개인진로상담에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83-408.
- 강수민, 문명현, 이윤주 (2022). 대학생 대상 구성주의 진로집단상담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과 대면 방식의 효과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 197-213.
- 강윤경, 선혜연 (201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1), 1-20.
- 고용노동부 (2025. 3. 11.).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93
- 교육부 (2023.04.).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2027).
- 국가데이터처 (2025. 09). *연령/활동상태별(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47S&conn_path=I2
- 권기철, 김채규, 구정화, 김리강, 김민정, 김영희, 남재준, 오미숙, 이지은 (2022). 울산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참여자의 전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8(1), 85-127.
- 금창민, 이해은 (2023). 청년 니트(NEET)의 취

- 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5), 249-265.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배진우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 (NEET) (연구보고 18-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신애, 조항 (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0(2), 91-110.
- 김은수, 이윤선 (2022). 대학생 진로성숙의 영향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319-352.
- 김종욱 (2023. 05.). 청년층 '쉬었음' 인구 변화 및 향후 취업 계획 현황. 월간 노동리뷰. 95-98.
- 김종운, 박성실 (2010). 진로장벽탐색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9(3), 209-230.
- 남재량 (2021). COVID-19 충격이 청년 니트 (NE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21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3-53.
- 박기령 (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현, 이금숙 (2016).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51(3), 401-420.
- 박찬호, 김선미, 유신복 (2021). 진로성숙도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성별 차이에 대한 다집단 분석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7(5), 541-561.
- 방희원, 손승민, 조규판 (2020). 대학생의 진로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진로동기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547-568.
- 손승연, 이종연 (2017).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 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149-170.
- 오한솔, 이지혜 (2020). 고학년 대학생의 진로 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와 생애목표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85-108.
- 유수복 (2017). 성별과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7(1), 253-273.
- 이은진 (2002).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21-636.
- 이희정, 김금미 (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은미 (2022). 우리나라 학교진로상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상담학연구**, 23(1), 53-66.
-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 전영창, 이선화 (2024). 청년니트 (NEET) 유형과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63(1), 329-350.
- 정민주 (2014). 4 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취업불안

-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1), 81-104.
- 정선영, 허인화, 하아영, 조한익 (2025).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잠재전이 발달유형과 성별, 목표, 적응, 진로, 부모요인의 영향. *교육심리연구*, 39(1), 51-84.
- 정형옥, 정수연 (2024. 1.). 경기도 여성 취업구조와 변화 (통권 01호). GWFF통계인사이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5(2), 47-60.
- 주희진, 주효진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4.
-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채희원 (2023). 청년 니트족의 진로교육 경험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직동기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3(3), 79-97.
- 최현주, 신혜진 (2017). 성별에 따른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45-465.
- 한국고용정보원 (2025). 청년패널조사(YP) 2021 [데이터 세트]. 고용조사분석시스템. <https://survey.keis.or.kr/yp/ypdownload/List.jsp>
- 함경애, 박현주 (2017).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성숙도와 행복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 분석: 교차-지연 패널 모형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9(3), 457-476.
- Behrendt, P., Heuer, K., & Göritz, A. S. (2021). The effect of career counselor behavior on reemploy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8(5), 584-598.
- Carkit, E., & BACANLI, F. (2020). Gender differences on career maturity: A meta-analysis study. *Pamukkale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48(1), 84-10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 Carvalho, C. L., Taveira, M. D. C., & Silva, A. D. (2024). Integrative review on career interventions with unemployed people: Nature, outcom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61(1), 18-45.
- Eurofound. (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Hechtlinger, S., & Gati, I. (2019). Reducing dysfunctional career decision-making beliefs: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of a group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4), 449-460.
- Lipshits-Braziler, Y., Amram-Vaknin, S., Pesin-Michael, G., & Tatar, M. (2022). Patterns of online seeking and providing help among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British*

-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50(1), 29-42.
- Prideaux, L. A., & Creed, P. A. (2001).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A review of the accrued evidence.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0(3), 7-12.
- Rahmani, H., Groot, W., & Rahmani, A. M. (2024). Unravelling the NEET phenomen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9(1), 1-37.
- Rojiani, R., Santoyo, J. F., Rahrig, H., Roth, H. D., & Britton, W. B. (2017). Women benefit more than men in response to college-based meditation training. *Frontiers in Psychology*, 8(1), 1-11.
- Sikkema, K. J., Hansen, N. B., Kochman, A., Tate, D. C., & DiFranceisco, W. (2004). Outcome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 group intervention for HIV positive men and women coping with AIDS-related loss and bereavement. *Death Studies*, 28(3), 187-209.
- Son, S., Jang, Y., & Yoon, M. (2025). Developmental trend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career maturity and predictors in South Korea: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52(2), 256-273.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3), 151-163.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원 고 접 수 일 : 2025. 11. 17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1. 05

게 재 결 정 일 : 2026. 03. 04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and the ‘Inactive’ Status Among Unemployed Youth: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Woojune Jung

Dongil Kim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areer counseling experiences among unemployed youth on their “inactive” status,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Using the Youth Panel, binary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 25.0 and PROCESS macro Model 4 was conducted on 1,845 individuals classified as unemployed. The results showed, first, that youth in the inactive status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career maturity than those who were employed or seeking employment. Second, career counseling experiences among unemployed men reduced the likelihood of being inactive one year later by approximately 50%. Third,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significantly enhanced career maturity, which in tur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robability of being inactive status, indicating a mediation effect. In contrast,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nonsignificant for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necessary for preventing youth inactive statu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Inactive youth, Career counseling experience, Career maturity, NEET, Gender difference